

특집 2017 독일 IPM 참관기

아제 다시 시작이다.



우리 꽃 품종 독립

박공영 / 우리꽃연구소 대표

우리꽃연구소는 2008년 처음 일본에 품종을 수출했다. 햇수로야 따진다면 10년이다.

10년동안 일본에 6개 품종과 유럽에 12개품종이 미국에는 7개, 호주에는 7품종이 로열티 수출되었고 수치로 본다면 지난 10년간 1품종도 어렵다는 품종수출은 호평을 받을만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10년의 노력이 무색하게 세계무대는 높고 깊은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2016년에는 좋은 품종은 준비 했지만 시험재배도 하지 못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시장의 주도권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품종 자체의 출고 나뭇이 아니라 단지 주도권과 그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떤 우량의 품종도 쉽게 수출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며 2016년을 보내게 되었고 2017년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며 새로운 질서가 생길 때까지 무뎌뭇기 기기로 했다. 2017년 독일 예센의 IPM(국제농업원에박람회, 2017년 1월 24일-27일) 까지, 독일 예센에는 각국의 기업들이 내놓은 새로운 품종과 기술, 농업기계 등이 선을 보인 자리였다. 나와 직원들은 1월 20일 미리 출국, 우리의 거래처와 정보를 얻기 위한 장정에 올랐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차를 렌트하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를 돌고 다시 독일로 오는 7박 8일간의 일정은 우리의 새로운 품종 35종을 실험재배하기 위한 회사의 방문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정으로 짜였다. 오후 6시가 넘어 공항을 나온 일행은 벨기에를 향해 차를 몰아 독일 국경부근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다.

20일 우리의 거래처 Allaert를 방문했다.



1876년 설립, 4대째 경영을 이어오고 있고 지금은 Boomkwekerij 부부와 딸이 함께 농장 운영 중이며 딸인 사룟데가 경영을 이어받기 위한 경영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그 일에 대한 자긍심에 많은 부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주로 관목과 침엽수를 재배하는 장인인데 아주 잘 정돈된 묘목의 상태는 보기만 해도 지루까지 이어온 역사와 노하우를 엿볼 수 있었다.



유럽은 주로 가족농이 발전한 형태로 우리의 농업도 이제는 대를 물릴 수 있는 자금신 회복이 관건일 것이다. 오후에는 플러그 묘를 주로 생산하는 HeCo라는 육묘회사를 방문했다. 새로운 품종을 주로 육묘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일들을 주로 한다.

21일 아침 우리는 보스폼으로 이동해 주변의 가든 센터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것도 빼먹지 않았다. De PlantenMarkt 가든센터 역시 작지만 3대째 운영되는 침엽수와 관목 전문 매장이었다.



잘 정돈된 디스플레이와 시리 해를 막을 수 있는 세심한 준비에서 3차산업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되는 곳이었다.



토요일이었지만 우리를 맞아준 Speersgaren의 루퍼트는 네덜란드의 조경식을 수출과 유통의 대가답게 자세하고 정직한 안내를 해 주었고 우리는 눈으로 확인한 시설에 감탄했다.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세척시설과 포장시설, 그리고 저장고를 돌아보며 느낀 것은 우리가 중국의 거대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준비하고 참고 해야 할 방문이었다는 것이다. 고 마웠던 것은 여름에 방문요청을 권해주는 친절함까지 고객을 위한 철저한 서비스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에는 우리의 품종을 받기를 원하는 Breeder plants의 사장 로렌드와 미팅을 갖고 유럽의 로열티 사업과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과 그들이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에 약간의 뿌듯함을 맛볼 수 있었다.



이미 그들이 우리의 품종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22일 일요일은 직원들을 위해 암스테담의 시내 중심의 5성급호텔에 짐을 풀고 자유시간을 즐겼다.



23일 월요일은 우리의 로열티 품종들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아르마다와 알케마다를 일일이 방문하고 우리의 품종상태와 진행과정 그리고 중요한 새로운 우리의 시험재배품종을 전달했다. 점점 우리품종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의 눈빛에서 우리 품종독립의 순간이 서서히 오고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아직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품종이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간다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흥분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24일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Batowe의 재배 담당 총괄 매니저인 Jaap의 친절한 설명으로 우리의 조팝꽃들바 실험 재배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올해 더 많은 모수를 증식해 내년부터 유럽전역에 공급될 것이라는 평가에는 눈 내린 어두운 오후가 설지 않았다.



25일 우리는 독일 국경 큰 숲속의 휴양지 호텔에 이용하고 새벽 서둘러 에센의 IPM을 향했다. 매년 방문을 하지만 올해는 더욱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해 입구에 많은 방문객으로 혼잡을 빚었다. 최신의 품종과 기계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점점 더 좁아지고 모이는 고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전략과 눈치싸움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전과 다르게 우리꽃연구소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대접은 바뀌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의 상록잔디페랭이를 판매하고 있는 아르마다사의 제라드는 올해 25만본을 판매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은 물론 우리의 새로운 품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이탈리아의 캄펜이라는 메이저 회사를 연결해 주기도 했고 내년부터 판매가 시작될 미국시장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바이어인 플랜팅의 가족들은 우리를 매우 환대했고 저녁 파티에는 각국의 육종가와 생산자 그리고 유통인을 연결해 주는 배려뿐만 아니라 여름에 반드시 방문해 달라는 초청의사를 몇 번이고 해주었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소개해줬다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50여 품종이 유럽의 땅에서 싹튼, 판매되고 있다. 아직 금액적으로 많다고 할 수 없지만(약 3천만 원, 판매가 약 30여만) 12년 전 무작정 혈혈단신 유럽 하늘아래 부스를 열어 시작했던 우리꽃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각국에서 재배되는 우리의 품종이 있다는 사실과 반복적으로 많은 품종이 수출되고 있으며, 또 그 기대를 한층 더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은 감산도 변화하게 한 시간이고 역사가 되었다. 🌸



아름다운 꽃, 응벽이나 암석사이에 안정맞춤 물싸리 (Potentilla)

물싸리(Potentilla fruticosa)는 원래 중부이북의 북부 지방에서 자라는 관목이다. 물싸리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가식물인지 착각하게 되는데 원래는 약간 건조한 사질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따라서 북부 고산의 바위주변이나 햇빛이 좋은 계곡 주변의 건조한 모래땅에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심겨지는데 관목으로 군식하기도 하고 다양한 혼합식재에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암석가든에도 자주 쓰인다.

꽃색에 따라서 다양한 품종이 있어 기호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들사이 식물로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뿌리가 강하고 길게 뻗는 성질은 물론 잔뿌리의 발생도 좋아 작은 공간 혹은 간게 뿌리가 들어가야 관근이 형성되는 암석 사이 식물(메지식물)이라고 주로 표현함으로 아주 좋은 소재이다. 우리의 야생 물싸리는 동근형의 직립형태로 주로 1.5m

까지 자라는 특성이 있어 큰 바위로 석축을 쌓아 올린 곳에서 자라는 관목이다. 물싸리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가식물인지 착각하게 되는데 원래는 약간 건조한 사질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따라서 북부 고산의 바위주변이나 햇빛이 좋은 계곡 주변의 건조한 모래땅에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심겨지는데 관목으로 군식하기도 하고 다양한 혼합식재에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암석가든에도 자주 쓰인다.

석축의 암석사이식물로 효과적이고 암석가든이나 옥상정원에도 매우 잘 맞는

물싸리종류를 다양화하여 석축의 암석사이 식물로 잘 적응하면 효과적이고 생육이 암석가든이나 옥상정원에도 매우 잘 맞는 소재로 손색이 없다. 퇴비는 너무 풍부하면 못자라므로 조밀한 품종들은 잎흙기가 장마철에 녹아 내릴 수도 있어 주의를 해준다. 🌸

물싸리의 종류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코레우리는 우리꽃이 개발한 신종 품종 정원식물로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우리꽃연구소 구입문의: 031-634-7990**



정원용초화류





정원용관목

여름정원의 청량제 *Hydrangea*

수국

- 1. 종류가 다양한 매우 아름다운 화관목이다.
- 2. 반음지에서 양지까지 모두 적응을 잘한다.
- 3. 내한성이 약한 품종은 겨울철 보온을 해주어야 한다.



라브라



로즈원츠



리벨라



메이듀라에



미스텔빈



바닐라프라이즈



번데이프라이즈



안나벨리

아름다운 덩굴미인 *Clematis*

클레마티스

- 1. 품종에 따라 화색과 크기가 다양하여 구미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 2. 꽃이 아름다워 정원을 뿐만아니라 분화품으로도 좋은 소재이다.
- 3. 덩굴재질이 좋은 아주 비옥한 토양에 심어 새로운을 연출하기에 매우 좋다.



리움



루델



마스베트맨



블랙프린스



에도윌



오모시로



메가본드



프린스칠스



아라벨라



전파벨



웨글리

봄을 수놓는 아름다운 꽃햇살

Cytisus

양골담초

- 1. 색감이 다양하고 매우 화려한 관목이다.
- 2. 우리의 정원에 잘 어울리는 친소재 관목
- 3. 초화류와도 매우 잘 어울리고 군식 및 열식에도 좋다.



로터



보스콧루비



알버스



홀랜드아

화려한 여름 대형의 꽃 *Hibiscus*

부용 빅스타

- 1. 여름에 피는 대형의 꽃은 정원용으로 좋은 소재
- 2. 키가 작아 쓰라짐이 없고 생육이 잘난다.
- 3. 도로변, 공원, 전원주택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가을 단풍이 일품

Itea

이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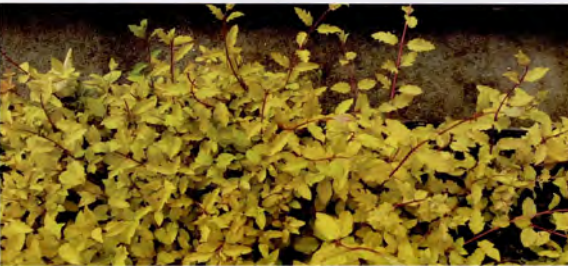
- 1. 고려향태의 하얀꽃은 아래로 늘어지면서 풍성하게 핀다.
- 2. 가을에 붉은색 단풍이 매우 아름답다.
- 3. 군식하거나 울타리용으로 열식에도 좋다.



황금색 인동 *Lonicera*

인동 해오름

- 1. 진한 황금색은 일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 2. 단일 종류로 이용해도 좋고 다른 인동양종과 번갈아가며 연출할 수 있다.
- 3. 봄부터 여름까지 황금색, 가을에는 단풍이 좋은 일곱살목



봄을 맞이하는 눈꽃송이 *Philadelphus*

고광나무 스노우플레이크

- 1. 봄에 피는 하얀색 감꽃은 정원을 밝게 해준다.
- 2. 포인트로 식재하거나 열식을 해도 좋은 소재이다.
- 3. 꽃향기도 너무 좋은 화상의 정원관목





꽃잔디정원

꽃잔디의 계절이 찾아왔다.

남부지방에서는 4월중순경부터, 중부권에서는 4월말부터 여기저기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원식물이다. 대면적에 조성하기도 하고, 정원의 앞 라인쪽에 볼식물로 빠질 수 없는 소재이다. 그리고 작은 석축메지움으로도 좋다. 이제는 한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색상의 꽃잔디품종으로 조성하는 것이 경관적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특히 봄에 꽃잔디처럼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정원식물은 흔치 않다. 그래서 이른 봄에 입맥터를 주어야 하는 축제나 행사를 위해서는 꽃잔디가 최고인 소재임은 이미 증명되어있다. 메인사진은 약 16,000㎡의 면적에 조성된 산청 생초조제조각공원 꽃잔디정원으로 넓은 면적에 펼쳐진 장관은 저마다 탄성이 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 특히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색감의 품종을 이용하여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사진1는 남산공원 전망대중의 1곳에서 내려다보는 곳에 자리잡은 꽃잔디정원으로 꽃잔디 중간중간에 다른 식물들을 혼성식재하여 꽃잔디가 지고난뒤에 다른 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2는 넓은 면적에 무지개라인으로 간격 조정한 사례이고 사진3은 암석가든에 꽃잔디가 전면적에 깔고루 분포되어 봄을 수놓는 전경이다. 이른 봄에 대면적에 보여줄 수 있는 소재는 톨립이 일반화 되어 있다. 유채, 꽃양귀비 경우에도 5~6월이 되어야 화사한 꽃을 안겨준다. 그렇다면 4월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소재로 꽃잔디 그 이상의 소재는 찾기 힘들 것이다.

유기질 퍼틸라이즈를

유기질 퍼틸라이즈를 특제품으로 시간이 지나면 색이 없어지는 부직포에 유기질비료를 넣어 사면에 꽂는 형태로 토사유실의 방지 및 비가 오면 부직포에 들어있는 유기질비료가 스며나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비료가 공급된다.



산청 생초조제조각공원 꽃잔디정원

국내 최대의 꽃잔디정원으로 다양한 색상의 꽃잔디로 디자인되어 4월중순부터 아름다운 꽃잔디물결이 펼쳐지며 감동의 경관을 연출한다.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아서리 772번지

시공순서도

- 1 잔디 제거 전
- 잔디 제거 후
- 사면에 유기질 퍼틸라이즈를 (생명향차) 설치
- 꽃잔디 식재
- 꽃잔디 개화초기
- 꽃잔디 만개한 전경

대표적 정원식물군 - ②

음지를 밝혀주고 수변을 자연하게
옥잠(호스타) Hosta



잎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대형종에 이르기까지 또는 잎의 색상이 풍부한 옥잠은 나무아래 음지에서 다양한 품종을 잘 활용한다면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음지용 정원식물이다. 또한 촉촉한 토양에서 생육이 좋아 수변식물로 활용해도 좋은 소재이다.

옥잠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정원식물이다. 생육이 강건하고 재배가 용이하며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옥잠은 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다. 노란색무늬, 은회색, 블루톤, 크림색 그리고 녹색의 잎 등 품종에 따라 겉모습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잎은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기도 하고 크고 강렬한 색상



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리고 부드럽게 광택제를 바른 것과 같이 윤기와 광택이 절묘하게 잎속에 스며들어 있기도 하다. 종류의 다양성은 음지를 연출하는데 있어서

그라스의 이해 - ②

봄부터 가을이 가는 자락까지
붉은 기운 홍피



피(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는 우리나라의 강둑과 논둑 그리고 무덤가에서도 봄이 되면 하얀 머리를 풀어헤친, 작은 역세모양으로 아름다운 추어의 식물이다. 지방에서는 배비라고도 하는 이 피는 이삭이 피기전 부드러운 때 이삭을 까서 껌처럼 씹어 먹던 간식용이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하도 길고도 강하여 잡초로 곤혹스러기까지 했다. 그러나 강둑이나 논둑의 무너짐이나 사태를 방지하는 데는 더



없이 좋은 식물이다. 이 피의 변이종인 홍피는 봄과 여름에는 잎 끝이 붉은 단풍처럼 물들어 특이한 경관을 연출한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더욱 붉은 선형이 끝은 듯한 이색적인 아름다움은 긴장감과 함께 차별화된 조경을 연출한다. 홍피는 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며 포복경으로 땅속으로 줄기를 뻗어 번식하는데 땅이 좋은 경우는 매우 번식이 빠르다. 주요 적용 가능한 곳은 연중 붉은색을 강조할 수 있는 곳으로 돌 틈이나 작은 언덕 그리고 문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테크주변등에 어울리게 식재하면 매우 아름답다. 또한 경사가 급한 법면이나 독 등에 식재하면 좋고, 특히 하계 경사가 강한 골포장의 방커 머리 쪽에 식재하여 그 긴장감을 주는 맛도 추천해봄직 하다. 그리고 티의 언덕이나 깎지 않아도 되거나 간혹 약하게 잘라 붉은 느낌의 긴장감을 주는 것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타가 든이나 컨테이너 재배시 혼합수종으로도 추천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쉬워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연중 붉게 물들일 수 있고 가뭄과 습해에도 매우 강하고 공해에도 강한 유망한 수종이라 하겠다.



매우 좋은 소재로 자주 이용된다. 옥잠이 잘 자라도록 하는 방법은 충분한 간격을 주는 것이며 잎의 크기를 고려하여 띄워서 심어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너무 많은 색상이 섞이지 않게 하며 밝은 색을 사용하거나 녹색의 잎을 사용하여 밝은 느낌을 주면 좋다. 푸른색 계통의 잎은 시원한 느낌의 색감을 표현 한다. 반대로 황금색 잎의 옥잠은 염록소를 천천히 생성하며 이는 유전적으로 선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염록소는 따뜻하고 밝은 상태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 옥잠은 여름에 내리는 비를 좋아하고 이는 더욱 풍성한 잎을 만들며 추운 겨울에는 동면을 한다.

Gardenin Plant 옥잠 화분에 재배하기

- 1 건강한 옥잠 모종을 준비한다.
- 2 화사, 산토, 퇴비를 일정한 비율(5:4:1)로 섞어 화분바닥에 일정량을 채운다.
- 3 준비된 옥잠 4~5송이 화분속에 뿌리를 가지런히 하여 넣는다.
- 4 흙이 보일듯 할 듯 일정도로 흙을 화분에 채우고 물을 흠뻑준다.
- 5 아름다운 세순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리나리아(애기금어초)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리나리아, 물레보초, 이름에 리들이 느껴지네요. 가벼운 리듬에 몸을 맡기듯 편지모양 리듬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잎이 가늘고 꽃은 여러 개 피는 듯합니다. '리나리아'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라는 꽃말을 알았다는도 믿기지만 '타스'라는 자태를 뽐내며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줍니다.



애기금어초라고도 불리며 잎이 가늘고 꽃은 여러개 피는 듯하지만 만개되면 형형색색의 타스로운 자태를 뽐낸다. 봄에 직파해도 좋고 튼튼 등 구근파종지에 직파하면 튼튼을 보고 난후 연결해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포트묘로 재배해서 화단에 군식해도 좋고 혼성식재지 포인트식물로 활용해도 매우 좋다.

리나리아씨앗과 재배



리나리아씨앗



트레이에서 발아되어 자라는 모습

줄기심기가 가능한 플러그묘

니겔라

엘리자베스 시대로의 귀환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꽃입니다. 거울러 올라가 엘리자베스 시대, 샹젤리나 정원의 주조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합니다. 일본 남가키리정 장미 길라잡이 다양한 색상의 꽃이 매력적인 '남가키리' 꽃입니다.



보슬보슬 솜털같은 잎은 마치 톱풀과 비슷하다. 다복한 잎속에서 꽃대가 올라와 이색적인 꽃을 피운다. 은은한 파스텔톤의 꽃은 매우 매력적인 그래서 누구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다. 리나리아와 마찬가지로 직파해도 좋고 포트묘로 재배해서 다른 꽃들과 혼성해서 식재하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니겔라씨앗과 재배



니겔라씨앗



트레이에서 발아되어 자라고 있다.

직파해도 되지만 빠른 효과를 보기위해 포트에 재배하거나 구매하여 정원에 식재해도 좋다.

Nice to **see** you!

가든엔씨앗

정원용 고급종자

100선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467-872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성리 924번길 87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gardenjoa.com (100선 사진 자료)

가든인추천 구근식물(Bulb) - ②

튤립을 비롯한 추식구근은 이른 봄 무채색 경관에 색감을 주어 그 가치를 높여주고 백합류와 글라디올러스와 같이 여름에 꽃피는 춘식구근은 화단을 화려하게 만들어 꽃이 크고 눈에 잘 띄는 좋은 절화용으로도 이용한다. 이와같이 구근은 정원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어 가든인에서 구근식물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 편집자주

화려한 여름을 맞이한다! 글라디올러스



글라디올러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름꽃이다. 대표적인 봄식재 구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에 심겨지기보다 절화용으로 많이 심겨지는데 앞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정원에 심게 된다면 여름내내 혹은 가을까지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열식으로 심는 것이 좋다. 심는 깊이는 12~16cm이상 깊게 심고 구덩이에 여러 개를 심을 때는 반드시 반복하고 열식으로 심은 것은 여름날 좋은 꽃꽂이용으로도 매우 좋다.

또 이들을 장기간 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찬 서리가 떨어지는 4월중순 이후 2주간격으로 5월말 혹은 6월까지 심게 되면 심은 후 100~120일 사이에 꽃을 피우게 되어 6월말부터 거의 10월까지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글라디올러스는 정원용이라 해도 키가 크고 꽃이 커 자주 대를 해 주는 것이 안정한데 열식의 경우는 네트를 쳐주는 것이 좋고 군식한 것은 철사로 만들어진 지주대를 이용하면 된다. 생육지는 물 배집이 좋은 사질양토에 비옥한 토양을 좋

아한다.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멀칭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고 건조기에는 수분을 많이 찾고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꽃이 아래서부터 피고 시들면 매일 꽃을 따내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일정 개수 이상 꽃을 피우고 없어지면 잎은 남기고 꽃대를 잘라주고 마지막 비료를 공급해야 한다. 이유는 내년에도 꽃 구근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근을 캐내어야 한다. 잎과 줄기가 붉은 상태로 캐내어 2일 정도 말린 후 흙을 털고 작은 인경(새끼구근)은 골라내고 중간에 굵은 구근만 따로 모으고 오래된 구근은 버린다. 2주 정도 더 말린 후 양파망 등에 포장하여 건조하고 따뜻한 곳에서 보관한다. 그러나 반드시 보관 전 구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좋은 방법은 상자에 완전히 마른 상태로 혹은 톱밥 등을 켜켜이 깔아지며 층을 이루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구입문의
031.634-7990

가든엔씨앗

스페셜 혼합종 시리즈

칼라스페셜 : 핑크&블루 / 레드&화이트 / 블루&화이트 / 오렌지&옐로우&화이트 / 파스텔

벌&나비 스페셜 : 허니비 / 버터플라이

우리법면 3.4호 시리즈로 한국의 대표적인 혼합종을 개발, 최고의 히트작을 탄생시킨 명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편하고 화려한 정원용 고급 혼합종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가정의 소정원, 도심의 거리, 공원, 식물원 등에 간편하게 처리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육과 관리가 쉽고 개화기가 길어 1회 살포만으로 경관연출을 완성합니다.

색상별 5종류와 벌과 나비를 부르는 2종류로 나누어져 구미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소포장(100g)단위로 판매하여 효율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나왔다! 정원용 혼합종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문의 전화 : 031.634.7990



박스형태의 정원으로
설치가 편리하고 어디서나 정원이 가능하다!
오아시스(박스정원)

화단 조성이 쉽지않은 건물앞, 도로변, 교통섬 등의 보도블럭 위에 지금 까지는 원형화분에 꽃을 심는 방식이 보편화 되어있다. 그러다보니 디자인면에서 단조롭고 화분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디자인만이 가능한 것이 었다.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 연출은 가능하지만 그 표현에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정원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장소에 관계없이 정원을 자유자재로 조성할' 방법은 없는것일까? 라는 질문에 원형화분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오아시스는 박스형태의 정원으로 설치가 편리하고 어디 서나 정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질문의 정답이 될 수 있다. 먼저 박스 형태로 박스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조성도 가능하지만 연결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정원을 연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설치 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저수관이 있어 1회 관수로 오랫동안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자관리형으로 도심광장, 교통섬, 건물앞 골드, 공원, 행사 디스플레이, 도로변, 육상 등 화단조성이 힘든 곳에 쉽게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정원의 형태도 암석가든형, 혼합가든형, 텃밭가든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가능하여 원하는 대로 선택 가능하다. 미리 원하는 정원의 형태를 주문하 게 되면 현장에서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오아시스에 식재하여 활착 이 되어 어우러지게 되면 바로 그 자체를 조성할 현장에 배치하여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바로 원하는 수종으로 교체하 용이한 장점이 있어 특히 지자체의 행사용으로 일년초로 조성현황에 행사 가 끝난뒤 원하는 장소에 옮긴뒤 식물만 교체하여 원하는 유형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

규격은 3가지 형태로(규격표 참조) 출시되어 있고 2016년도에 첫 출시되 어 아래 설치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양한 곳에 적용되어졌다. 아래는 정원조성이 어려운 곳에 설치가 편리한 박스정원, 오아시스를 새로운 정 원용 아이템으로 적극 추천해본다.

▶ 규격

구 분	규 격
오아시스	1,000 × 1,000 × 300
	1,000 × 1,000 × 400
	1,000 × 1,000 × 600

오아시스 (박스정원) 설치사례



강주 5.18민주광장



일산 식생활력공원



강동구 교통섬



구로 고척스카이돔 부근



일죽면사무소



강동도심길입면활화



군포 침목죽재



파주 법원을 희망 식물재

내염성 식물

- ① 아래표는 바닷가 주변지역 설계시 식물작용(내염성식물)에 대한 기초정보로서 참고하고 설계시 편리하도록 관급자재 식별번호를 첨부하였습니다.
- ② 아래식물은 일반적으로 내염성 있는 식물로서 각 식물마다 내염성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③ 바닷가 주변에 사식하고 있는 식물(예, 갯게미취, 갯메꽃, 갯잔디 등)들은 내염성이 강하지만 일반적으로 재배농가에서 재배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어서 주로 농가에서 재배 되고 있는 식물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품명	규격	식별번호	단가(원)	과명	화색	화기	초장	빛
1	갈대	8cm포트	22424673	300	화본과	이삭형	9~10월	170~200	양지
2	금강애기가린초	8cm포트	22206686	1,200	물나물과	노랑	5~6월	10	양지
3	백두산애기가린초	8cm포트	22663027	1,050	물나물과	노랑	5~6월	10	양지
4	니로피아	8cm포트	22206699	1,950	백합과	혼합	7~8월	50~60	양지
5	대사초(골드라이트)	8cm포트	22206700	1,950	사초과	무늬종		10	양지
6	마삭줄	8cm포트	22424949	600	함초과	관엽형			양지
7	매직캐트	8cm포트	22209198	1,500	장미과	분홍	6~7월	30~50	양지, 반음지
8	백문동	3~5분얼	22424951	200	백합과	보라	7~8월	20~30	양지, 음지, 반음지
9	황노박영	8cm포트	22659303	1,200	백합과	보라	7~8월	20~30	양지, 음지, 반음지
10	무늬바베루	8cm포트	22424953	670	백합과	보라	7~8월	30~40	양지, 음지, 반음지
11	무늬역새	10.2cm포트	22206709	3,900	화본과	무늬종	9~10월	170~200	양지
12	백합(나보나)	8cm포트	22663030	1,500	백합과	하양	6~7월	70~80	양지, 반음지
13	백합(바리톤)	8cm포트	22663031	1,500	백합과	주황	6~7월	70~80	양지, 반음지
14	부들	8cm포트	22424964	360	부들과	이삭형	9~10월	150~170	양지
15	부처꽃	8cm포트	22424965	370	부처꽃과	분홍	6~7월	70~80	양지
16	부처꽃말	8cm포트	22206718	1,340	부처꽃과	분홍	6~7월	70~80	양지
17	비단세덤	8cm포트	22206721	600	석죽과	분홍	6~10월	10	양지
18	사초(꽃기장물)	8cm포트	22467962	2,320	벼과	이삭형	9~10월	150~170	양지
19	사초(무늬일사초)	8cm포트	22467963	2,400	사초과	관엽형		10	양지
20	삼색애기가린초	8cm포트	22424976	520	물나물과	노랑	6~7월	15~20	양지
21	삼색잔디파랭이	8cm포트	22206725	1,640	석죽과	분홍	4~10월	10	양지
22	새털구마리	8cm포트	22206726	2,250	사초과	이삭형	9~10월	150~170	양지
23	설기빈초	8cm포트	22424979	370	물나물과	노랑	6~7월	20~30	양지
24	송이	8cm포트	22424981	670	두릅나무과	관엽형			양지, 음지, 반음지
25	수선화	8cm포트	22659003	820	수선화과	노랑	3~4월	30~40	양지, 반음지
26	수크령	8cm포트	22424983	300	화본과	이삭형	9~10월	60~70	양지
27	속근사루비마	8cm포트	22424986	1,350	풀꽃과	보라	5~6월	30~50	양지
28	속근생성천국	8cm포트	22206731	1,100	국화과	빨강	6~10월	30~50	양지
29	스텔라원추리	2~3분얼	22206734	1,000	백합과	노랑	5~9월	30~50	양지
30	역새	8cm포트	22206731	260	화본과	이삭형	9~10월	170~200	양지
31	역새(그린라이트)	10.2cm포트	22206742	3,450	화본과	이삭형	9~10월	170~200	양지
32	역새(리틀제브라)	10cm포트	22659395	3,520	화본과	이삭형	9~10월	170~200	양지
33	역새(모닝라이트)	10.2cm포트	22206743	3,450	화본과	이삭형	9~10월	170~200	양지
34	역새(파랑새)	10.2cm포트	22206744	4,870	화본과	이삭형	9~10월	100~150	양지
35	역새(호피)	10.2cm포트	22206746	2,600	화본과	이삭형	9~10월	170~200	양지
36	예키나	8cm포트	22206748	1,120	국화과	분홍	7~8월	70~80	양지
37	예키나(스노우)	8cm포트	22206749	1,340	국화과	하양	7~8월	70~80	양지
38	예키나(레이노우)	10cm포트	22653048	2,020	국화과	다양	7~8월	50~60	양지
39	옥잠(골드타이라)	2~3분얼	22206752	2,680	백합과	보라	6~7월	20~30	양지, 음지, 반음지
40	옥잠(블루무)	2~3분얼	22206754	2,250	백합과	보라	6~7월	40~60	양지, 음지, 반음지
41	옥잠(얼레강스)	2~3분얼	22206753	2,680	백합과	보라	6~7월	40~60	양지, 음지, 반음지
42	옥잠(연주리)	10cm포트	22426535	900	백합과	보라	7~8월	40~60	양지, 음지, 반음지
43	옥잠화	10cm포트	22425003	1,050	백합과	하양	7~8월	40~60	양지, 음지, 반음지
44	왕상록매형이	8cm포트	22425004	670	석죽과	분홍	5~6월	10	양지
45	왕원추리	8cm포트	22425005	370	백합과	주황	7~8월	60~70	양지, 반음지
46	왕수크령	8cm포트	22659900	1,420	화본과	이삭형	8~9월	40~50	양지
47	원추리(개강종)	2~3분얼	22206681	2,920	백합과	빨강	6~7월	60~70	양지, 반음지
48	유기(브라이트에피)	2~3분얼	22206759	8,250	울상과	하양	6~7월	30~50	양지
49	종새물	8cm포트	22206762	1,340	화본과	관엽형		15~20	양지
50	큰평의비름만주	8cm포트	22206766	1,640	물나물과	빨강	9~10월	30~50	양지
51	물수영물	8cm포트	22206769	1,300	화본과	이삭형	5~6월	30~50	양지
52	물왕(도라이트)	8cm포트	22659908	1,420	국화과	노랑	6~10월	50~60	양지
53	물왕(베이트)	8cm포트	22206770	1,500	국화과	빨강	6~10월	50~60	양지
54	물왕(물왕오렌지)	8cm포트	22663028	1,420	국화과	주황	6~10월	50~60	양지
55	물왕(파스텔)	8cm포트	22206775	1,120	국화과	혼합	6~10월	50~60	양지
56	해국	8cm포트	22425019	600	국화과	보라	9~10월	30~50	양지
57	홍피	8cm포트	22206775	970	화본과	관엽형		20~30	양지
58	원종무늬대사초	8cm포트	22206675	1,120	사초과	관엽형		10	양지, 음지, 반음지





After



Before

옹벽에
식물을 심어
도시를
숲으로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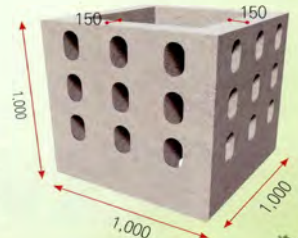
콘크리트, 꽃을 피우다.

벽벽花화樹수 꽃블록

- ① 축대를 쌓을 때 꽃블록을 이용하면 좁은 도로, 산책길, 주차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아파트, 개인주택 등의 담장을 꽃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③ 둔치의 방블대용으로 돌을 채우고 토양을 포설하면 물 속 고기들의 보금자리는 물론 다양한 식생도입이 가능하여 물 정화 및 용존산소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 ④ 산지의 사방댐과 계단식 식생도입을 위한 토사유출 방지에도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 ⑤ 벽화수 꽃블록을 사용하면 도랑이 줄어들어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 ⑥ 관목과 야생화 등 다양한 생태적 혼합이 가능하고 빠르게 식생이 안정됩니다.

Echo 방틀 제원표

제품명	규격	출규격	출수량 (면/㎡)	비고
Echo 방틀	1,000×1,000×1,000	Ø100(외경기준)	9	



구입문의  벽화수주식회사
T.055.964.7993 / 010.9722.6661